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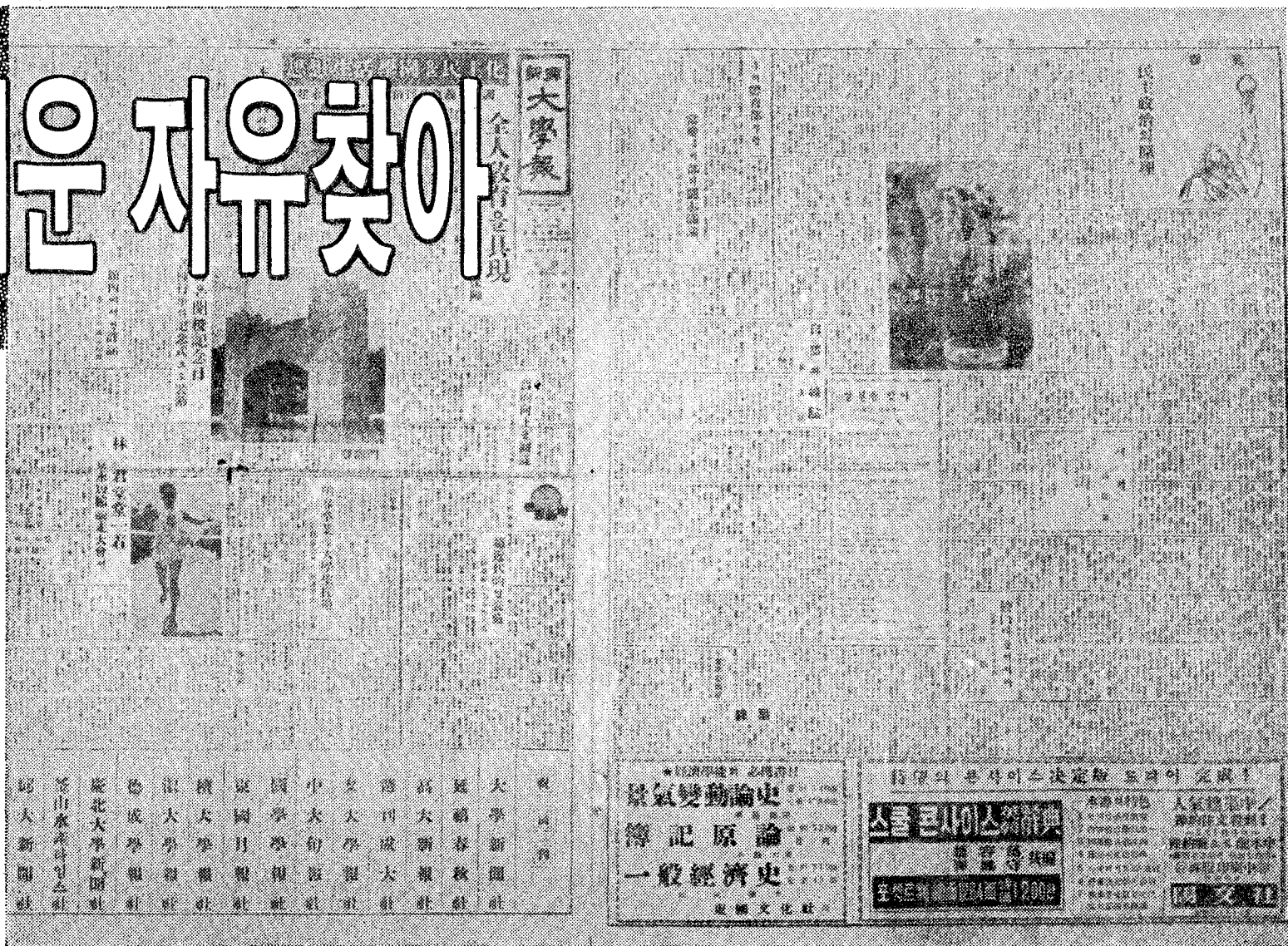
## 미래와 지난 세월 그리운 자유찾아

### 言路廣闊文化創造之源

祝大學週報創刊二十九周年誌慶之

甲子年初夏吉日

蘆江朴魯春



△현재 중앙도서관에 유입본으로 보관되어있는 본보55년 5월12일자 창간호의 1면과 4면. 이 창간호를 82년 여성구(경희중학교 교장)등인이 도서관에 기증, 유입본으로 본보의 출발을 증명하고있다.

#### 대학 언론의 창달위한 재다짐 —창간 29돌을 맞이하며—

##### 사설

「진리탐구」의 전당이라  
고 일컬어지고 있는 대학  
에 있어 대학신문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학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대학의 지적 활동에 지체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가?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결코 쉽사리 얻어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는 입장에 따라서 대학신문은 「필요악」일 수도 있고 또 「절대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아가 대학신문의 무용론이 설득없이 제기되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사회가 다양한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지적 활동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게 된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대학신문은 상응하는 존재이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신문은 대학내에서 지적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뒷받침할 수 있을 때 그 존재의 정당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신문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또는 대학인들의 「무의식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제도는 결코 아니다. 그 가치는 실로 다양하게 사고되고 추구되는 진리탐구의 과정을 좀더 효과적으로 지속시켜 나가는데 있다. 창간 29돌을 맞이하는 「대학주보」에 있어 세상 지나는 과거를 되돌아 보면서 깊이 재음미해야 할 과제가 바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재

발견에 있는 것이다. 대학주보가 학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적인 틀에서 내려는 생각때문에 우리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문화적 축에 해를 입혔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대학주보가 심오한 학문의 길을 가야 하는 대학인들에게 필요한 대화와 토론의 광장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대학의 세계적 중비에 별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주보가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나머지 공정한 언론으로서 못났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학주보는 지난 29년 동안 주어진 여건속에서 적어도 「경희역사」를 창조하고 축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자부할 수는 없는 것인지? 어떠한 입장에서든 대학주보가 경희의 참된 지적 활동을 촉진시키고 또한 모든 대학인들의 양식을 표출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어려운 역경을 지나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관적 편견과 아집에 의해 대학주보의 전체적 방향이 잘못 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러나 역사적 안목에서 볼때 대학주보의 지난 29년간의 과정은 결코 그렇게 쉽게 한마디로 무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29돌을 맞이하면서 대학주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소

위 학원의 자율화조치가 발표되고 각기 대학마다 저대로의 자율화의 요구를 내걸게 되는 시대상황의 변천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학문이 자유롭게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될때 비로소 대학의 가치는 구현될수있을것이며 지식인의 목표는 일층 더 그 의의를 발휘할 수 있다.

본래 지식인은 본능적으로 외부적인 간섭을 싫어하는 반면 그 자신의 내면적인 판단과 자율에 따라 행동하고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자유로와야 하고 또 자유롭게 피기를 원하는 지식인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 대학에서 자율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율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오늘의 대학인에게 부과되고 있다. 자율은 단순히 외부적인 간섭에서부터 벗어나는 과정과 상태를 의미한다는 소극적인 해석에서부터 자율을 가지고 무엇을 좀 더 할 실현해야겠다는 하는 의미에서의 적극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 양자의 해석은 오늘날 대학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화되기 위해 다 같이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교 사회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대학만이 결코 성적으로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까지 대학이 종종 타율적인 규제를 받게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대학은 사회에 의해 보호되고 육성되어져야하며 그렇게 될 때 사회는 그 발전의 기쁨을 충분히 다질 수 있게 된다.

자율화의 새로운 측면을 맞아 대학주보는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을 다시한번 감지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자율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의지도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도 함께 생각하면서 대학의 자율화를 실현하는데 대학주보가 좀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것은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에서 자율의 필요성은 바로 그것이 진리탐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진리탐구의 목적에 역행하는 자율화의 과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만약 자율화과정의 그정상태를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대학에서의 정상적인 지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게 되는 결과도 가져올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대학만이 고도의 자율화 속에서 학문과 양식의 자유를 누릴수 있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대학 자율화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대학주보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주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대학의 자율화가 실현될수 있도록 스스로 그 역할과 책임을 가다듬는 절충하고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외부적인 간섭을 배제하는 자율화는 대학주보 자체에도 요구되는 것이며 이것이 뒷받침될 때 대학자율화를 위한 자율화는 일층 더 높은 차원에서 실천에 옮겨질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호한 우리경희의 자율화를 실현하고 그에 따라 대학 발전을 위해 위대한 공헌을 했다고 다시 한번 자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것이 29돌을 맞는 오늘의 대학주보에게 절실한 요청이라고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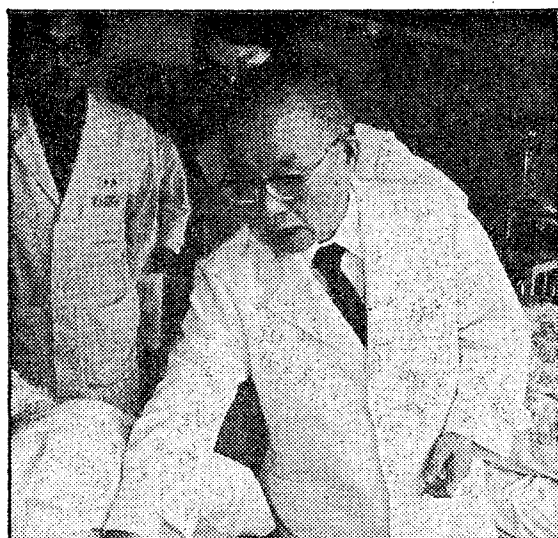
#### 韓國의 成就人

### 사랑과 봉사를 통한自己救援의기쁨

—이땅의 푸른 십자가가 醫人張起呂박사의 신앙과 철학—

1979년 8월, 라몬 막사이사이상 인선위원회가 나에게 「그리스도적 사랑과 청심자의 의료보조조합 설립에 관한 공적」을 이유로 막사이사이 사회봉사 부문상을 수여했을 때, 나는 내 종생의 생활신념을 이렇게 토로했다. 「나는 언제나 그 동기가 좋고 방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결과에 구애없이 생각한 바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70고회를 넘긴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50년 가까이 의료생활에 몸담아온 醫人으로서, 나는 늘 이러한 자세와 신념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해왔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 역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없는 회의와 자문을 거듭하며 살아왔다. 해답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使命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의사로서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자각이었다.



의술은 결코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고, 병을 낫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사랑과 이해를 통해 생명의 존귀함을 깨우치고 구원의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다. 완속한 의술은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자기 희생 없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는 믿고 있다. 자신을 던져 남을 위해 힘을 때어야 비로소 또 다른 생명은 살아나는 것이다. 따라서 영혼과 마음의 병이 낫는 것이 의사에게는 최고의 상이다. 진실로 나는 내가 받은 상이나 행한 일의 결과로 평가받을 원치 않는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하기보다 행복하기 위해 나는 노력하며 살고 있다.

張起呂

△생명의 문제는 사랑이며 사랑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聖山張起呂박사. 아프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그는 매일처럼 진료와기도를 잊지 않는다.